



2026년 6월 5일 금요일

Grain Re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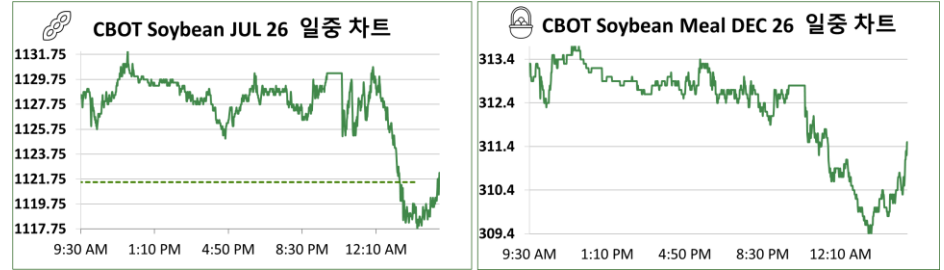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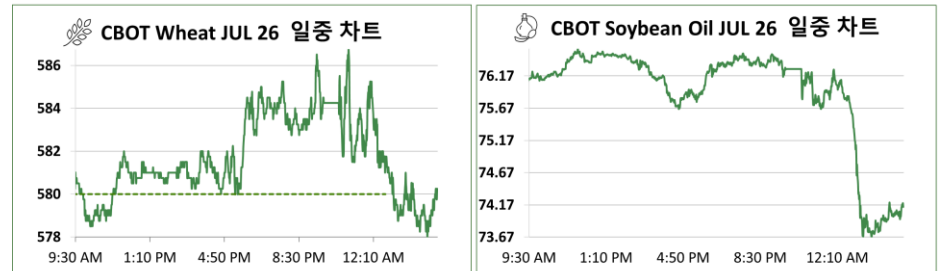
NH선물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5-069호 (2026.01.14~2027.01.13)



품목	월물	장상가	단위	CHG	▲%
옥수수	CN26	417.5	¢/bu	-7.00 ↓	-1.6%
	CU26	427	¢/bu	-5.75 ↓	-1.3%
	CZ26	446	¢/bu	-5.75 ↓	-1.3%
소맥	WN26	580	¢/bu	-1.75 ↓	-0.3%
	WU26	592.75	¢/bu	-2.50 ↓	-0.4%
	WZ26	611.5	¢/bu	-2.00 ↓	-0.3%
대두	SN26	1121.5	¢/bu	-8.00 ↓	-0.7%
	SQ26	1126	¢/bu	-6.50 ↓	-0.6%
	SU26	1122.5	¢/bu	-4.75 ↓	-0.4%
대두박	SMN26	308.5	\$/t	-5.20 ↓	-1.7%
	SMQ26	307.7	\$/t	-4.00 ↓	-1.3%
대두유	BON26	74.12	¢/lb	-2.17 ↓	-2.8%
	BOQ26	73.13	¢/lb	-2.02 ↓	-2.7%
원당	SBN26	14.14	¢/lb	-0.13 ↓	-0.9%
	SBV26	14.63	¢/lb	-0.10 ↓	-0.7%
WTI	CLN26	90.54	\$/Bbl	-2.50 ↓	-2.7%
달러지수	Spot	44556.34	Index	+10.26 ▲	0.0%
	Spot	100.069	Index	0.479 ▲	0.5%

Spread	근월물	원월물	Settle	CHG	전일
JUL 26- SEP 26	'JUL 26- 'SEP 26		-9.50	-1.25	-8.25
	'SEP 26- 'DEC 26		-19.00	0.00	-19.00
	'DEC 26- 'MAR 27		-15.50	-0.50	-15.00
	'MAR 27- 'MAY 27		-9.25	-0.50	-8.75
	'MAY 27- 'JUL 27		-5.50	0.00	-5.50
AUG 26- OCT 26	'JUL 26- 'SEP 26		-12.75	0.75	-13.50
	'SEP 26- 'DEC 26		-18.75	-0.50	-18.25
	'DEC 26- 'MAR 27		-16.50	0.75	-17.25
	'MAR 27- 'MAY 27		-10.00	1.25	-11.25
	'MAY 27- 'JUL 27		-6.50	1.50	-8.00
NOV 26- JAN 27	'JUL 26- 'AUG 26		-4.50	-1.50	-3.00
	'AUG 26- 'SEP 26		3.50	-1.75	5.25
	'SEP 26- 'NOV 26		-15.00	-0.75	-14.25
	'NOV 26- 'JAN 27		-14.75	0.00	-14.75
	'JAN 27- 'MAR 27		-7.00	-0.75	-6.25

일중차트



Comment

금요일 농산물 시장은 양호한 미국 기상 여건과 투기자금 청산이 겹치며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다. 중서부 지역 강수 확대와 추가 강수 예보가 이어지면서 작황 우려가 완화됐고, 중국의 수입 수요 부진과 에탄올 및 사료 수요 둔화 우려까지 더해지며 곡물 전반에 매도 압력이 확대됐다. 옥수수는 투기세력의 대규모 롱 청산과 신규 숏 포지션 유입으로 지난해 수확기 이후 최저 수준까지 하락했으며, 농가 판매도 크게 위축된 모습이다. 대두 역시 기상 개선과 상품시장 전반의 청산 흐름 속에 하락했지만, 바이오연료 수요 확대 기대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B50 바이오디젤 도입 계획과 동남아 국가들의 식물유 수요 확대 전망은 중장기적으로 대두유 시장의 지지 요인으로 평가된다. 소맥은 다른 품목 대비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 이미 투기자금이 순매도 포지션을 보유한 가운데 미국과 프랑스의 작황 우려, HRW 수확 과정에서 확인될 수확량과 품질 불확실성이 가격을 지지하며 낙폭을 제한했다.

금요일 뉴욕 3대 지수는 다우와 나스닥이 동반 하락하며 약세 마감했다. 예상치를 크게 웃돈 미국 고용지표가 금리 인상 우려를 자극하며 기술주 중심의 차익실현 매물을 유발했다. 5월 비농업 취업자 수는 17.2만명 증가해 시장 예상치의 두 배 수준을 기록했고, 실업률은 4.3%로 유지됐다. 레저·숙박, 지방정부, 의료 부문의 고용 증가가 전반적인 고용 호조를 이끈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6월 FOMC에서 보다 매파적인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을 반영하기 시작했고,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4.5%대로 상승했다. CME FedWatch 기준 연말 금리 인상 가능성도 70%를 상회하며 확대됐다. 주식시장에서는 금리 상승 부담이 집중된 기술주와 AI 관련 종목들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마이크로, 마벨테크, 브로드컴 등 주요 반도체주가 급락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10% 넘게 하락하며 시장 전반의 투자심리 위축을 주도했다. 한편 이란이 휴전 이후 처음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중동 긴장이 재차 높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최종 합의 가능성을 언급하며 협상 기대를 유지했다.

본 리포트는 당사 해외사업부에 의해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작성된 것이나, 그 정확성 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고객의 선물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고객의 투자의사결정은 전적으로 고객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이루어져야 하며,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송, 인용, 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투자는 금융투자상품(선물, 옵션)에 대하여 위험성, 수익성, 수수료, 오픈 방법 등을 NH선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전 상품 설명서와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선물, 옵션)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금융투자상품(선물, 옵션)은 자산가액변동, 영율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초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계좌 잔고에 유지증거금에 미달하는 경우 계약이 강제 청산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선물, 옵션 거래시 수수료는 계약당 \$120에 기타 지체인 사항은 NH선물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